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2차)

박 계 완
(성모자애병원 방사선과)



작년 8월 일본 성 마리아 병원 연수생 선발 이후 연수시작일인 2003년 2월 10일 후쿠오카 공항에서 처음으로 연수생이 모두 모였다.

준비를 위해 E-mail과 전화, on-line상에서의 채팅도 여러 번 가졌으나 준비가 얼마나 알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이었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수팀에 합격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다. 나 때문에 연수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일본어를 수강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출발하여 후쿠오카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공항에 도착하니 성마리아 병원 국제협력부의 토도유즈키씨와 연수생 통역을 맡으신 이케다 선생님께서 우

리를 마중 나오셨다.

일본을 처음 접한 느낌은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유명한 우동가게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한국에서 광고하는 인스턴트 우동인 카쯔오 우동을 시켰는데 그런 종류의 우동은 없다고 해서 그냥 우동을 시켜서 먹었다.

점심식사 후 차로 1시간 가량 내 달려서 병원에 도착하였다. 연수기간동안 우리가 머물러야 할 마리안 하우스Ⅱ에서의 주의사항, 연수중의 schedule과 orientation 받고 첫날의 공식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각자 짐을 풀고 마리안 하우스Ⅱ에서 우리들만의 간단한(?)입소식을 가졌다.

2월 11일, 연수 둘째 날이 일본의 건국기념일이라 공휴일이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휴일이라 모두들 즐거워했고, 일본문화 체험을 원했기 때문에 통역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인근의 다자이후텐만구로 가게 되었다. 다자이후텐만구는 신사로서 학문의 신, 스가와라 노니치자네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학문신사라 학생들의 입시철이 되면 학생들과 학부

모들이 많이 찾아와 그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국경 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다. 그 곳에서 요즈음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일본 전통 혼례를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우리들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오후에는 후쿠오카 시내로 가서 후쿠오카 돛 구장과 높이가 234m나 되는 해변 타워로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후쿠오카 타워를 구경하고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즐겁게 보낸 하루였지만 내일로 이루어진 첫 병원 생활에 모두들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다.

셋째 날, 본격적인 병원 연수가 시작되었다. 아침 8시에 직원 조회에 참석해서 한국에서 연수를 왔다고 인사를 하고 난 뒤 오전에는 병원을 다니며 병원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직원 탁아시설, 노인복지 시설, 500g의 미숙아를 키워서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허가 병산수는 1388병상인데 1200병상 정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외래며 병동 모두가 많이 붐비는 것 같지 않았다. 외래의 경우는 마치 한국에서의 조용한 카페를 연상케 했고, 병동의 복도에서도 환자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 병원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받았다. 오후에는 각 부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방사선과에서는 예가미 기 사장님께서 방사선과의 현황, 2주 동안 연수내용의 설명, 방사선과의 업무내용, 각 장비의 설명과 각 촬영실과 판독실을 안내해 주셨다.

안내를 받으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각 촬영실로 기사장님과 한국에서 연수생이 왔는데도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기사장님께서도 연수생이 왔다고 촬영실이나 판독실에 인

사를 시키는 일도 없었고 누가 오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업무중에는 서로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일본인의 습성이라고 전해듣고서는 조금 이해가 되었다.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밖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병원소재지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의 시청으로 가기로 했다. 시청은 20층 건물로 구루메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전망대가 있다고 했다. 버스가 우리 나라처럼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감히 버스를 탈 생각은 못하고 걸어서만 다녔다. 한참을 걸어서 시청에 도착하여 전망대에 오르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No였다. 전망대는 오르지도 못하고 시청사만 한참을 구경하다 나왔다. 병원이 있는 구루메시를 소개하자면 구루메시를 중심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녹지가 많기 때문에 물과 초록의 도시로 불린다고 했다. 인구23만이라고 했는데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에 성마리아 병원처럼 큰 병원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연수팀에는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약제과 3개의 과가 있었는데 방사선과에서만 자체적으로 연수생환영회를 해 주었다. 매주 목요일 conference를 한다고 했는데 conference를 마치고 자리를 같이 했다. 방사선과 과원의 2/3 정도가 참석해서 연수생을 반겨 주었다. 듣기로는 일본인들은 술을 그다지 많이 먹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술을 엄청 즐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연수 희망 part는 일반촬영과 MRI part였는데 방사선과 전 part를 돌고 희망part를 중심으로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환자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환자가 오면 내가 먼저 처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에 입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고,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최고로 모신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한다고 했다.

토요일은 나가사키 연수를 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과 그라바엔에 갔었는데 원폭자료관은 1945년 8월 9일 피폭의 참상을 비롯하여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경과, 피폭부터 지금까지의 나가사키의 부흥모습 및 핵병기 개발의 역사, 평화갈구 등의 스토리성이 있는 전시를 펼치고 있고 대형 원폭피해 자료, 피폭한 우라카미 성당의 남쪽 벽 일부를 재현 조형하는 등 피폭 직후의 나가사키의 참상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라바엔은 공원으로 일본이 개항당시 외국인들의 거류지였던 지역으로 공원내에는 당시의 양옥과 시내 각지에서 이전하여 복원한 유서 깊은 양옥들이 있어 지난날의 정취를 지금까지 전해주는 듯 했다.

한 주를 마치고 처음 일요일을 맞았다. 평일에도 밖으로 나가서 일본의 이것 저것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일요일을 숙소에서 보냈을 리가 없다. 구루메시에서 JR열차로 나가사키에 있는 하우스 텐보스로 가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연수의 절반을 새로운 각오로 임했다. 연수날짜가 지날수록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었는데 재진 환자의 경우 접수처에서 줄을 서지 않고 접수처와 외래 곳곳에 있는 진료예약단말기에 진료카드를 넣고 예약확인 후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환자에게 편리한 장비를 구입하는 세심함, 국제연수생과 타 지역의 장기입원환자의 보호자를 위한 기숙사 시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같이 연수를 받은 한 선생님이 검토 3단이

라고 하시면서 일본 검토를 직접 보고 싶다고 방사선과 기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아시는 분을 통해서 검토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한국의 검토는 기(氣)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검토는 기에 더 편중을 두어 연습에 임하고 있었다. 에가미 기사장님께서서는 병원에서의 연수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문화체험에도 많은 관심으로 우리들의 안목을 넓혀 주셨다.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한 2주동안의 연수가 끝나고 평가회를 가졌다. 다음 번 연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연수기간동안의 연수내용에 대한 설문과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뜻깊은 송별회를 가졌다.

성 마리아 병원에서 연수기간동안 보고 느낀 것을 업무개선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주 동안의 연수를 모두 마감했다.

보름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 수고해주신 방사선과 과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 기회를 주신 병원과 기사장님, 성 마리아 병원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홀로 고생한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이 글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